

‘고물가 전쟁’ 유통업계 4월 대규모 할인행사

광주복합쇼핑몰 경쟁 롯데쇼핑도 출점 의사

롯데마트·슈퍼 ‘온리원 세일’
신세계그룹 ‘2023 랜더스 데이’
홈플러스 ‘앵콜 홈플러스 데이’



홈플러스가 이달 진행한 창립 26주년 세일 ‘앵콜 홈플러스 데이’ 고객 성원에 힘입어 이달 5일까지 ‘앵콜 홈플러스 데이’를 개최한다. /홈플러스 제공

유통업계가 고물가 시대에 맞서 4월에도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각 사마다 ‘연중 최고 혜택’을 내건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부담 완화는 물론 내수 시장에도 활기를 더할 전망이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마트와 슈퍼, 롯데온 등 온·오프라인 전 채널에서 이달 12일까지 ‘온리원세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롯데마트와 슈퍼가 진행해 온 통합의 시너지를 정점까지 발휘한 결과물이다.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을 낮추면서 더 나은 쇼핑 경험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신선식품·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25대 상품을 선정해 1+1 증정, 50% 할인 등 연중 최대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마트에서는 치킨과 수입 소고기, 제주 갈치, 활대게, 광어를 반값에 선보인다. 토마토 전 품목, 미국산 오렌지, 두부와 콩나물 등도 ‘많이 살수록 더 싸게’, ‘엘포인트 할인’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한다.

롯데마트와 슈퍼에서만 운영하는 미용 티슈, 여행 가방 등 단독 상품은 특가에 내놓고 인기 먹거리와 생활용품 100여종은 1+1 행사 등으로 저렴하게 선보인다.

또한 26일까지 ‘온리원세일 쇼핑지원금’ 프로모션도 공동으로 진행해 롯데마트 오프라인 매장과 롯데슈퍼 오프라인 직영점에서 구매 고

객을 대상으로 100명을 추첨해 60만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신세계그룹은 이달 1일부터 통합 프로모션인 ‘2023 랜더스 데이’를 연다. 신세계의 프리아구 개막식에 맞춰 열리는 상반기 최대 규모 할인 행사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SSG닷컴 등 19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이마트는 4월 1~2일 본 행사를 열고 계란, 오렌지 등 인기 신선식품을 초특가에 마련, 총 100가지가 넘는 가공·생활용품을 반값에, 한우 전품목과 돈 삼겹살·목살은 행사카드 결제 시 40% 할인한다.

1일에는 파프리카, 대추방울 토마토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대립바스 디클린 수도용품, 훈제 연어, 유한김벌리 청소용품은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해 제공한다. 2일에는 간마늘을 1+1에 판매하고 오렌지와 사과를 할인가에 선보인다.

이 밖에 신세계 계열사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신세계백화점은 모바일 앱 접속 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SSG닷컴은 이달 1~7일 장바구니 쿠폰 지급, 타임딜, 브랜드 추천 행사 등을 선보인다.

홈플러스는 이달 진행한 창립 26주년 세일

‘앵콜 홈플러스 데이’를 개최한다. 2일까지 마이홈플러스 멤버 대상 암소 전 품목, 대게, 간척지 쌀, 잡곡, 루컴즈 TV, 밥솥 등을 초특가 기획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위스키 열풍에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발베니 12년, 글렌피딕 12년 셰리캐스크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마니아들의 수요를 공략한다.

이와함께 토마토·참외·애호박·유부초밥·만두·피자 등 10대 상품을 50% 할인 또는 1+1 기획전도 펼친다. /홍승현 기자

롯데쇼핑이 광주복합쇼핑몰 출점 의사를 첫 공식 언급했다.

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은 지난 29일 롯데쇼핑 제5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광주 복합쇼핑몰과 관련한 질문을 받아 “복합 쇼핑몰 출점을 검토 중이고 임차료 절감을 비롯해 사업성을 높일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며 “사업 조건과 개발 계획도 협의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롯데쇼핑이 출점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기존 백화점과 아울렛에 대해 김 부회장은 리뉴얼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점포를 미니화 하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롯데쇼핑의 고위 임원이 광주 복합쇼핑몰 추진에 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실상 유치전에 뛰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광주복합쇼핑몰 사업 유치전은 신세계퍼파티, 현대백화점 그룹, 롯데쇼핑의 3파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롯데가 추진할 광주복합쇼핑몰 위치는 어등산관광단지외 북구 본촌공단 내 롯데칠성 공장 자리, 북구 우치공원 등 3군데 정도가 거론되고 있지만 롯데칠성 공장 자리는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승현 기자



초대형 먹갈치 산지 직송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수산매장에서는 1마리당 2kg이 넘는 초대형 먹갈치를 선보인다. 광주점에서 판매하는 먹갈치는 목포에서 산지 직송했으며 살이 단단하고 달콤하고 깊은 맛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이드별 갈치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일년에 딱 두 번...홈플러스, 이너웨어 페스티벌

30개 브랜드 1,500종 할인

홈플러스는 이달 12일까지 ‘이너웨어 페스티벌’을 열고 30개 브랜드 상품 1,500여종을 할인해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킴포트핏’ 상품을 비롯한 지난 1~2월 이너웨어 매출이 전년 동월대비 15% 증가하고 최근 야외활동 증가·‘오운완(오늘운동

완료)’ 트렌드 등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너웨어 페스티벌은 연 2회(상·하반기) 진행되며, 상반기에는 아동·여성·남성 이너웨어 행사 상품 2장 이상 구매 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홈플러스는 ‘킴포트핏 기능성 상품’ 라인업 확대를 위해 6개월 전부터 행사를 기획, 물량을

전년보다 3배 늘렸다. 쿨 기능성 소재와 UV 차단 기능성 원단으로 제작한 ▲힐라·레노마 골프 이너웨어 ▲착용감을 높인 트라이엄프 프리티치 노와이어 심리스 브라 ▲비너스 노라인 심리스 브라·팬티 등이 대표적이다.

‘신영와코루’와 홈플러스가 단독 기획한 ‘와우 브라’도 선보인다. 고객 니즈에 맞춰 심리스 노라인으로 개발해 편안함을 강조한 것이 특징

이다. 쾌적함을 살린 쿨 기능성 이너웨어 ‘쿨플러스’ 상품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 외에도 20만 장 물량을 준비한 ‘비너스·비비안·트라이엄프’ 브라·팬티 기획 상품과 잠옷 등을 2장 이상 구매 시 30% 할인가에 제공한다.

‘카카오프렌즈·디즈니’ 캐릭터 이너웨어 상품은 3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김창규 홈플러스 이너웨어팀장은 “이너웨어 소비 확대 추세에 따라 고객 니즈에 부합하고 차별화된 이너웨어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 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